



지역차별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

/광주시제공

광주시, 고속철도(KTX) 호남선 증편 청신호

2026년도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통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KTX 호남선 증편'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통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에 KTX-청통 및 KTX-1 증편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변전소 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데 따른 성과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23일 광주송정역에서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호남선 운행 불공정 해소와 증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강기정 시장은 김은덕 국토

교통부 장관을 만나 증편의 시급성을 제차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KTX-청통은 중련 편성 시 기존 KTX-1 대비 약 1.4배의 전력이 소비되는 만큼 안정적인 증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2023년 8월 KTX-청통(중련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정읍시 소재 노령 변전소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 변전소 용량 증설의 시급성이 정식 제기됐다.

광주시는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2026년 5월부터 KTX-청통의 중련 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한 편당 1000석 이상 좌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는 기존 KTX-산천 중련 대비 약 300석 증가한 규모로, 시민들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2026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2028년 광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KTX-청통 중련 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호남고속선 내 노령 변전소를 포함해 개량이 필요한 4개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정부예산에 변전소 개량 사업비가 반영돼 단기적으로 KTX-청통 중련 운행 가능성이 열렸고 장기적으로는 호남고속선의 안정적 증편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KTX 호남선 증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지면 안내		
▶ 與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벌였다" 규탄	3면	
▶ "300억 부자야" 수감 중에도 감방 동기변호사 등친 사기꾼	9면	

광주시, 'AI 모빌리티 위성' 2027년 우주로 보낸다
인공지능 기반 큐브위성... 누리호 6차 발사 부탐재위성 선정
AI·모빌리티 데이터 수집 임무 수행... 지역 산학연 공동 개발
광주시 주관·조선대 개발 총괄... 530km 태양동기궤도에 진입

광주시가 주도해 개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큐브 위성인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GAiMSat-1)'이 오는 2027년 우주로 향한다.

광주시는 우주항공청이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누리호 6차 발사 부탐재위성 공모에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GAiMSat-1)'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1(GAiMSat-1)'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중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보내질 예정이다.

게임셋(GAiMSat-1)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조선대학교가 개발을 총괄하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GAMA),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 혁신기관과 ㈜해웍스, ㈜

스페이스랩 등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개발된다.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개발되는 게임셋(GAiMSat-1)은 추진기, 인공지능(AI) 컴퓨팅 모듈 등의 주요 부품은 국산 개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며, 게임셋(GAiMSat-1)의 국산화율을 61%까지 올릴 계획이다.

위성은 누리호 6차 발사를 통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약 53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로 진입할 예정이다.

게임셋(GAiMSat-1)의 핵심 임무는 우주궤도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주궤도 환경을 분석하고, 위성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보드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기술을 실증해 우주 자율비행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전남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3천여 명 규모 단계별 비상근무반 운영·24시간 모니터링

전라남도는 2026년 3월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울거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 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km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천여 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연합차량 1천998톤, 소금 4천810톤, 친환경 제설제 5천765톤, 제설장비 2천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염수분사 자동화 시스템 40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5개소(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재터널·광양 진월교·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북부·중부·서부·동부 권역별 제설차고 4개소를 운영해 자체 공급을 원활히 하고, 눈·결빙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선별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제설부서, 국지도·지방도 현장 유지관리, 이순신대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며, 적설 예보 시 상습 결빙 지역과 중점 관리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효율적 제설 작업과 도로 안전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제설 작업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빈틈없는 각종 대책으로 도민 안전사고 제로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